

동구, 세계시장 장악한 동구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들

광주 동구(정장 임택)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온닷과 ㈜세안코리아, ㈜미니페이 등 게임·농업·뷰티 분야마다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온닷'은 최근 구글플레이의 '2024 인디게임 액셀러레이터(IGA)'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국내 게임사는 구글이 전 세계 60개 회사를 지원하는 게임사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온닷은 올해 선정된 한국의 8개 기업 중 하나다. ㈜온닷이 개발한 '브레드이발소 베이

커리 타운 만들기'는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힐링 게임으로, 방치형 힐링 타이쿤 또는 타운 시뮬레이션 장르이다. 이 신규게임은 현재 애플 앱스토어 가족 앱 순위 2위, 구글플레이 스토어 신규 추천게임 피쳐드(구글플레이 평가에서 게임성을 인정한 게임을 스토어 피처링 영역에 노출)됐다. ㈜세안코리아 역시 세계적으로 농촌 노동력이 감소하고 탄소중립 이슈로 토지에 직접 씨를 뿌려 작

물을 재배하는 직파농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착안했다. 그 결과 기존 파종기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질과 수확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응축된 스프링 힘에 의해 종자가 강제로 배출되는 정확한 점파가 가능한 회전식 롤러 방식 제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중기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광주 해외지사 재산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미니페이는 화장품 브랜드 '아

리라고'를 런칭해 미국, 캐나다,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등 수출하며 'K-뷰티'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리라고 제품은 국내에서도 인정받아 온라인 판매와 더불어 피부과·관리샵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기업 수출 페스티벌에서 두바이 바이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유빈 기자

남구, 각종 재난 및 사고 안전보험 적용 관내 주소 둔 주민들은 가입 절차 없이 혜택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최근 "일상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 안전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민 안전보험은 구청에서 피해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 제도이다. 남구는 지난 2021년부터 구민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내 주민 18명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혜택을 지원하며, 남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구민 안전보험의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 범위도 다양하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를 비롯해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일상에서 자주 발생해 보험 수혜율이 높은 편인 화재 수술비와 개 물림에 따른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도 지원한다. 남구는 피해 주민이 안전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세대에 안내문 배부와 구청 SNS 채널 및 소식지 게재, 17개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계기관 홍보물 비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 안전보험 홍보에 나서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희태 기자

북구, 오치 공영주차장 개장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치동에 공영주차장(오치동 969-3번지 일원)을 새롭게 조성해 주민들에게 선을 보인다.

북구는 '오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장식이 열렸다.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오치동과 인근 지역은 주택과 상가 밀집 등으로 주차 여건이 열악해 그동안 주민들의 주차 인프라 개선 건의 등 공영주차장 필요성에 대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이었다. 이에 북구는 주민들의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북구 사업 선정을 적극 건의했고 그 결과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비 38억 원을 확보해 주차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광산구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 주와 공동으로 시르다리아 상공회의소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우즈베키스탄 경제정책, 시르다리아 주 기업 지원정책 소개에 이어 광산구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과 우즈베키스탄 기업 및 정부와의 1:1 상담이 진행됐다. /광산구청 제공

이후 지난 2023년 10월까지 사업부지 확보, 조성계획 수립, 공사설계 용역 등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끝내고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공영주차장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오치동에는 1005㎡ 부지 면적에 '주차면 수 33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이 신설됐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가로등, CCTV, 주차관제 시스템 등도 설치돼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김재성 기자

광산구, 우즈베키스탄 경제 교류 성공적 출발

광산구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 주와 공동으로 시르다리아 상공회의소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단장으로 지역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한 광산구 경제사절단, 아크말존 마흐부다예프 시르다리아 주지사, 호지마노브 자물릿딘 굴리스탄시장, (사)한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협회 등

이 참석했다. 시르다리아 주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와 가까운 지리적 위치, 풍부한 교통·전기 등 풍부한 기반 시설, 1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갖춘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경제도시이다. 지난 2013년 조성된 40㎢ 규모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30년간 토지 무상임대 및 각종 세제혜택 등 투자 유치에 나서며 매우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포럼에선 우즈베키스탄 경제정책, 시르다리아 주 기업 지원정책 소개에 이어 광산구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과 우즈베키스탄 기업 및 정부와의 1:1 상담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광산구 14개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과 30회 이상의 상담을 가졌다. /서기만 기자

서구, 외식업소 경영 전문컨설팅 실시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30개소를 대상으로 외식업소 경영 전문컨설팅에 나선다. 앞서 서구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해 업소별 사전 진단 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분야는 ▲원가분석, 손익관리 등 경영관리 ▲온·오프라인 마케팅, 스토리텔링, 디자인 개발 등 홍보·마케팅 ▲맛개선, 신메뉴 개발, 메뉴 분석 및 상품력 강화 등 메뉴개선 총 3개 분야로 업소별 3-5회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향후 컨설팅을 수료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및 마인드 제고, 마케팅 비법 등 영업자들의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가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구는 컨설팅 과정에서 역량 있는 음식점에 대해 우리동네 골목맛집 선정을 지원하고 장사의 신아카데미 수료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구에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한 업소로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보건위생과로 이메일(eunhh325@korea.kr)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통해 음식점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의 지원을 통해 침체돼 있는 외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공정과 상식